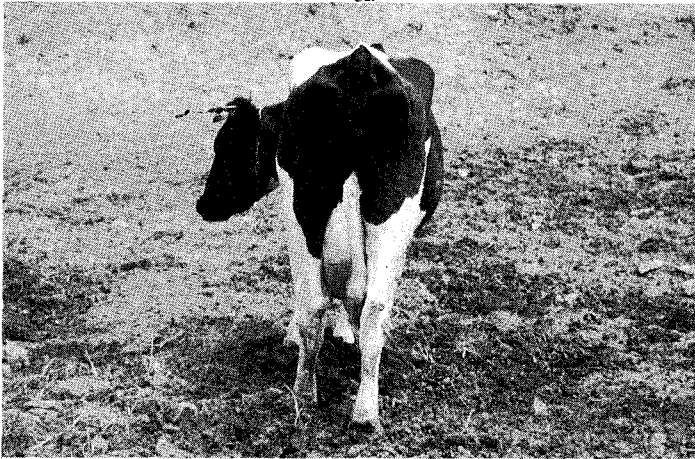




“우리집 소는 왜 병이 많지”



정 부 진

한일사료(주) 마케팅부 차장

좌골과 요각이 앙상하게 드러난 소.
이런 소들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목장에서 비유초
기때 많이 나타난다.

소는 반추위를 포함해 4개의 위를 가진 동물이다.

이것은 하나의 가설처럼 대자연에 널려있는 풀을 유유히 뜯어 삼키고 맹수들의 위협으로 부터 벗어나 한적한 곳에서 그 풀을 토해내 되새김을 하기 위해서였을지 모른다.

소나 염소, 사슴등 4개의 위를 가진 모든 가축이 온순한 것은 이러한 추리를 가능케하는 것이다.

이처럼 젓소는 풀을 먹고 사는 가축이었다.

그런데 어느때부터인지 소를 기르는 사람들이 곡식을 먹이기 시작했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곡식이 주를 이루고 있는 농후사료 위주의 사료급여가 보편화되어 버렸다.

그 결과 당장의 우유생산량은 증가되었지만 질병의 과다한 발생으로 농장경영에 커다란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소는 소처럼 키워라

소도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외부로부터 각종 세균이나 환경변화와 같은 다양한 공격을 받는다.

사람을 포함한 모든 동물은 이러한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 자신을 지키고 살아가는 존재와 원상으로의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

소가 병에 걸리는 것은 외부의 공격에 대해 방어할 능력이 없게 된 때문이며 병에서 회복되는 것은 내부의 존재와 회복력이 외부의 공격을 능가했을때 가능하다.

그렇다면 지금 농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유방염, 전위, 고창증, 설사와 각종 번식장애가 다발하고 있는 이유는 간단히 설명될 수 있을 것 같다.

젓소에 맞지않는 환경, 사료급여, 사양관리가 보편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젓소는 다른 가축과 달리 거의 모든 일생동안 우

유를 과도하게 착유당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와같이 젖소자신이 건강을 지키고 생존할 수 없는 여건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질병발생인 것이다.

따라서 소를 키우는 사람은 당연히 소의 특성과 생리를 정확히 알고 그렇게 키우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사육방법이 될 것이다.

젖소를 주인인 자신과 같이 생각한다거나 혹은 돼지나 닭과 같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키운다면 젖소에게는 전혀 맞지않는 사육이 되고 반대급부로 젖소는 질병등 각종 스트레스로 인해 생산성 저하를 가져올 것이다.

수태, 그것이 문제다

우리나라 목장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 중의 하나는 수태이다. 분만한지 100일 이내에 수태가 되어야 번식간격이 12개월 내지 13개월이 될텐데, 어떤 소는 6개월, 1년이 지나도 수태가 이루어지지 않아 송아지 생산은 물론 우유생산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고능력우에서 더욱 많이 발생하고 있다.

목장에 가서 발정이 오지 않거나 수정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소연하는 소를 보면 대부분 비쩍 말라있는 소라는 것을 알게된다. 이것은 영양이 부족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해 보이는 것이다.

옛날 우리의 할머니, 어머니들은 3년내지 4년 간격으로 아이를 가졌다. 피임을 하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그러나 요즘 젊은 주부들이 만약 피임을 하지 않는다면 아마 연년생으로 아이를 가질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옛날 할머니, 어머니들은 온갖 힘든 노역과 함께 보릿고개등으로 영양부족이 매우 극심했고 요즘 주부들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영양이 남이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발정이 제대로 오지않고 수태가 잘 되지 않는 젖소에 대한 대책은 너무도 간단하다. 젖소에게 사료를 많이 주는 것이다. 자기의 몸을 유지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을 만큼의 영양공급과 환경조성이 필요한 것이다.

질병이 없는 낙농

대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 별로 크지 않는 읍내마다 동물약품을 판매하는 업소가 두세곳씩 자리잡고 있으며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목장에 가보면 주사약과 약봉지들이 진열장을 가득 메우고 있으며 심심찮게 수입약품도 눈에 띈다. 젖소를 키우는 분들이 한결같이 질병 때문에 낙농을 못해 먹겠다고 야단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약들이 없다면 당장 낙농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수익을 깎아먹는 필요약들이다.

젖소는 원래 다른 동물처럼 자신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동물이다. 병이 많은 것은 사양관리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유가 조금 적게 나오더라도 약을 쓰지 않는 젖소관리, 수의사의 진료가 필요치 않는 목장경영이 되어야 한다.

소가 병이 나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약값은 말할 것도 없고 심하면 진료비가 추가된다. 여기에 시간은 낭비되고 신경은 몇 곱으로 쓰이게 된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질병이 없는 그래서 수의·약품값이 거의 부담을 주지않는 낙농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를 건강하게 키우는 일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목장에서 약병보다는 미네랄이나 영양블럭이 더 중요하고 주사기 보다는 사려깊은 사양관리가 보다 가치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건강한 젖소를 키우는 노력. 이것은 낙농의 시작이며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